

# 4차 대유행 조짐에 ‘한미 자가진단키트’ 주문 10배 껑충

(최대)

정확도·편의성 장점으로 호평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30분  
결과 양성시 반드시 PCR 검사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개인이 쉽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개인방역의 중요성이다 시커지면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확진자가 1000명대에 진입한 시점부터 한미 자가검사키트의 주문량은 4~5 배 증가했으며, 5월과 6월 등과 대비해도 약국가의 주문량이 최대 10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미약품이 지난 6월 출시한 자가검



한미약품 자가검사키트

사키트 ‘한미 코로나19 험테스트’는 정확도와 편의성을 장점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한미 코로나19 험테스트 자가검사키트는 어디서든 손쉽게 감염 여부를 확

인해 자가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검사 시간과 결과 확인까지 15~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실제로 외출 전후 손소독제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한미 코로나19 험테스트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은 소비자가 직접 콧속(비강)에서 면봉으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뤄진다. 이후 대조선(C)과 시험선(T)의 표시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자가검사키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동영상은 ▲검사 준비 ▲검체 채취 ▲검사 과정 ▲결과 해석 ▲검사 후 폐기방법 등 순으로 고려해 누구나 한눈에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설명서를 꼼꼼히 읽기 힘든 소비자를 위해 자가검사키트 사용 시 주로 궁금해하는 주의사항, 면봉 사용법 및 회전 횟수, 용액통 고정방법, 결과 해석법 등을 섬세하게 설명해 편의성을 높였다. 동영상은 한미약품 홈페이지나 SNS, 제품 패키지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대조선(C)만 나타날 경우 음성으로 판별한다. 이는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항원이 발견되지 않아 ‘감염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붉은색 두줄(대조선C, 시험선T)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양성으로 판

단한다. 즉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항원이 발견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때는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반드시 전문의가 시행한 검사 결과와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진단해야 한다. 또 선이 희미하게 나타나더라도 라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창에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는 결과로 본다. 새로운 검체와 기기를 사용하여 재시험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코로나19 험테스트는 한 패키지에 2개의 디바이스를 구비해두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전경

## 유바이오로직스 변이 대응 비임상 지원사업 선정

### 가칭 ‘유코백-19-SA’

유바이오로직스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 지원사업에서 신규 항원조성을 통한 변이주 대응 업그레이드 코로나19 백신후보인 ‘유코백-19-SA(가칭)’이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비임상 시험 단계를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은 연간 8억원이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영국(알파), 남아공(베타), 브라질(감마), 인도(델타, 델타플러스) 등에서 다양한 변이주가 계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 변이주에 공동으로 반응하는 중화항체를 유도할 수 있는 후보항원 및 면역시스템을 연구해 오고 있었다. 이번 과제 선정을 바탕으로 신규의 후보백신인 ‘유코백-19

-SA’에 대해서 형질전환 마우스를 이용한 바이러스 공격시험을 통한 효력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연구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KM PC)를 통해 서울대·연세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가장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RBD 부위를 주요 항원으로 하며, 자체 보유한 면역증강기술(EuIMT 기술) 및 미국팝 바이오텍사의 항원전달기술(SNAP 기술)을 융합한 신규 면역증강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미 우한주(WT)를 기본으로 하는 코로나19 프로토타입 백신인 ‘유코백-19’는 지난 6월에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 티즐 “홈디저트로 시원한 휴가 보내세요”

### 티즐 푸딩 챌린지 진행

웅진식품의 블렌딩티 ‘티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티즐 푸딩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티즐 푸딩 챌린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해 집에서 달콤함을 즐기는 홈디저트족을 타겟으로 기획됐다. 여름을 맞아 간단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상큼한 푸딩으로 챌린지를 준비했다.

이번 챌린지는 오는 18일까지 웅진식품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웅

진식품의 티즐 푸딩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든 나만의 티즐 푸딩을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티즐 1박스(20입)을 증정한다.

웅진식품의 ‘티즐(TEAZLE)’은 다양한 첫잎과 과일을 블렌딩한 크래프트 티 음료다. 티 마스터가 직접 엄선한 허초, 우롱차, 아쌈홍차 등 좋은 품질의 고급 첫잎을 사용했으며, 풍부한 첫잎의 맛과 리얼과즙의 상큼달콤한 맛을 함께 담아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고단백 초유 엄선 ‘마시는 초유프로틴 365’

### 롯데칠성음료, 단백질 기준치 12g

롯데칠성음료가 고소하고 진한 우유 맛의 단백질 음료 ‘마시는 초유프로틴 365’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월 파우더 형태의 단백질 식품 ‘초유프로틴365’를 선보인 ‘롯데제과’와 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중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한 RTD(레디 투 드링크) 단백질 음료 마시는 초유프로틴365를 선보이게 되었다.

마시는 초유프로틴365는 프랑스 유가공 전문기업 인그리디아의 프리미엄 초유 분말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젖소

가 분만 후 5일 동안 분비되는 초유 중에서도 24시간 이내에 착유한 고단백 초유만 엄선했다.

동물성 단백질인 초유 단백, 우유 단백, 식물성 단백질인 완두 단백 등을 담아 균형 잡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6, B3, C, D와 아연 등이 함유된 점도 특징이다.

패키지는 250mL 용량의 팩 형태로 휴대가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며, 한 팩으로 단백질 1일 섭취 기준치 22%인 약 12g을 섭취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 하이트진로

## ‘발비 소프라니’ 2종 출시

하이트진로가 여름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 ‘발비 소프라니’ 2종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비’와 ‘로에로 아르네이스’는 가벼운 바디감과 청량감이 뛰어나다.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대표 와인 ‘가비’는 토착 품종인 코르테제 100%로 만들어진 와인이다. 레몬, 복숭아, 꽃향의 싱그러움과 균형잡힌 산도가 특징으로 해산물이나 샐러드와 가볍게 즐기기에 좋다. ‘로에로 아르네이스’는 토착 품종 아르네이스 100%로 만들어져, 꽃내음이 향긋한 와인이다.

/조효정 기자